

甌山の 道家的 傾向과 《无極道》의 道教的 要素

JeungSan's Taoistic Tendency And The Taoism

Element Of Mugeugto

고 남 식

(한국, 대전대학교)

《 Abstract 》

JeongSan(1895-1958) achieves spiritual enlightenment from JeungSan(1871-1909) in 1917. So JeongSan's thoughts is originated from JeungSan's Cheonjigongsa. JeungSan's thoughts has a tendency of taoism. JeungSan's taoistic thoughts is chiefly revealed by taoistic human ripening, daily taoistic life. JeungSan maintain his taoistic thoughts through Shinto. JeungSan's Shinto is concerned in Bokhee's Yuk thoughts.

Forwardly JeungSan synthesize a period from Cheonhwang. By the way Cheonhwang thoughts has a character of Meuweehwa. This fact is out a special property of JeungSan's thoughts. That is, JeungSan's taoistic thoughts is related to ancient times Sinto. JeungSan's Shinto thoughts is concerned with JeungSan's taoistic thoughts. JeungSan's Shinto and Meuweehwa thoughts is together related to JeungSan's Cheonjigongsa. JeungSan's Shinto is progressed by newly religious sacred work named Cheonjigongsa. JeungSan's Shinto is composed of a divine judgment to the universe and human. The Mugeugto is founded through JeungSan's Cheonjigongsa by JeongSan in 1925. The Mugeugto established JeungSan as a religious subject named KucheonEungwonNoiseongBowhoaCheonzonSangje. This treatise discuss that the Mugeugto taoism is revealed by its turning up time, a religious subject and purpose. The Mugeugto appearance is concerned with Sinwon. JeungSan's Shinto thoughts is composed of a divine judgment that is built up JeungSan as a KucheonSangje. According to it, JeungSan's taoistic thoughts is taoism in the Mugeugto. The purpose of the Mugeugto is a JisangSinseon and a JisangCheonkug. A JisangSinseon thoughts and A JisangCheonkug is realized by JeungSan's Shinto.

※Key words : JeungSaŋs taostic thoughts, JeungSan ' s Shinto, Sinwon, Mugeugto, JisangSinseon, JisangCheonkug, KucheonSangje.

증산의 도가적 사상, 증산의 神道, 新元, 무극도, 지상신신, 지상천국, 구천상제

I. 서론

鼎山(道主, 趙哲濟, 1895-1958)은 滿洲 奉天에서 1917년에 甌山(上帝, 姜一淳, 1871-1909)으로부터 啓示에 의해 증산의 大巡한 진리를 感悟得道하는데 이는 증산이 <天地公事> (1901-1909)로 정한 <布教 50년 공부> (1909-1958)¹⁾에 의한 것이었다. 따라서 정산의 종교적 행적은 증산의 선행된 천지공사와 증산의 화천 후 九天에 회귀해서 계시로 선택된 종통계승자로서 증산이 정산에게 내리는 계속된 계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化天 후 《无極道》(1925)에서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上帝> ²⁾라는 神格位로 奉安된 증산은 先天시대의 道家사상을 수용한 위에 자신의 독창적 사고와 신이한 능력으로 기존 신계의 질서를 뜯어 고쳐 착란을 바로 잡고 神人依導에 의한 解冤과 報恩의 원리로 神界를 재편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이것은 증산이 주장한 神道の 근간이며 특징이다.

증산의 人身降世는 구천상제로 天神의 위치에 있었던 증산이 처음으로 강세해 구원을 행하고 가르침을 인간에게 베풀어 신앙적 敬拜를 받음으로써 신, 인간적 차원을 모두 아우르는 완성된 三界를 구현하는 절대적 頂點에 이르게 됨을 보여 준다.³⁾ 정산은 증산의 뒤를 이어 증산을 신앙대상으로 하는 종단을 창건하여 증산이 이루어 놓은 신계의 질서 체계를 축으로 종단을 운영하고 자신도 종통계승자로서 玉皇上帝의 신격위를 갖고 포교 및 공부를 추진하였다. 이에 무극도에 나타난 도가적인 면은 정산이 종통계승자로서 증산의 도수를 풀어나갔지만 그 源泉은 증산에 의해 득도하였으므로 증산의 사상에 근원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 논문은 무극도에 나타난 도교적 요소에 대해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

1) “천지공사를 마치신 후 포교 오십년 공부종필이라 쓰신 종이를 불사르시고”(《典經》, 공사 3장 37절)

2) 강세하신 강증산이 구천상제이심을 분명히 일깨워 주어야 한다.(대순진리회 교무부, 《대순지침》, 1984,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7쪽), 《대순지침》은 종단《大巡眞理會》를 창건한 牛堂(都典, 朴漢慶, 1917-1996)의 1980년 1월부터 1984년 3월까지의 훈시를 중앙총의회의 요청에 따라, 교무부가 그 要義를 정리한 책이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같은 책, 3쪽) <구천상제>는 <구천응원거성보화천존상제>의 약칭이다.

3) 고남식,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의 위상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 《대순사상논총》 16집, 경기도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3, 9쪽.

를 위해 증산의 사상에 나타난 도가적 특성을 본 후 증산의 화천 후 증산의 종통을 받아 정산이 창건한 무극도에 나타난 도교적 요소를 新元에 따른 무극도의 출현배경과 신앙대상 그리고 목적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진행된 증산의 도가적 성격과 관련된 연구는 두 가지 방향으로 대별된다. 하나는 이능화(1869-1943)⁴⁾, 김홍철⁵⁾, 이강오⁶⁾, 김탁⁷⁾ 등에 의해서 연구된 증산의 사상에 나타난 도가적 성격을 찾은 것과 정재서⁸⁾에 의해 진행된 한국 민간도교의 사적전개와 연계해서 조선말기에 등장한 신종교인 증산교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경우이다.⁹⁾ 각 연구의 성향은 대략 다음과 같다. 이능화는 《조선도교사》에서 조선후기 신종교의 도교적 경향에서 증산의 도가적 성격을 언급하였으며, 김홍철은 〈한국신종교에 나타난 도교사상(증산교를 중심으로)〉에서 증산사상의 전체적 흐름은 도교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증산교는 仙을 주체로 한 통합종교사상을 가지고 있는 종교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이강오는 〈한국 신흥종교에서 보는 도교와 불노장생〉이라는 논문에서 한민족 仙流의 원류와 불노장생을 말하고 동학, 南學, 단군신앙에서 도가적 요소를 언급한 후 증산교에서의 도술조화(증산의 권능, 천지공사, 신명공사, 현무경의 부적)를 밝히고 있다. 한편 김탁은 증산교가 仙을 주체로 한 통합종교사상이라고 한 김홍철의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여, 증산교에서 도교가 갖는 주체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에는 반대하였다. 김탁은 〈한국종교사에서의 도교와 증산교의 만남〉에서 증산교에 나타난 도가적 성격을 이능화가 《조선도교사》에서 한국 신종교를 도교와 관련해서 언급한 장을 인용하여, 도교가 증산교에 영향을 주었음을 증산의 위격과 호칭, 도교적 용어, 도교적 설화, 도교적 수련, 증산이 행한 도교적 술법을 통해 밝히고, 아울러 증산의 도교 비판과 그 대안을 말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 경향과는 다른 측면에서 정재서는 〈한국 민간도교의 계통 및

4) 이능화 輯述, 이준은 譯註, 《조선도교사》, 서울, 보성문화사, 1986, 참조.

5) 김홍철, 〈한국 신종교에 나타난 도교사상〉,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참조.

6) 이강오, 〈한국신흥종교에서 보는 도교와 불노장생〉, 《한국도교와 도가사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1, 참조.

7) 김탁, 〈한국종교사에서의 도교와 증산교의 만남〉, 《도교의 한국적 수용과 전이》,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4, 참조.

8) 정재서, 〈한국 민간도교의 계통 및 특성〉, 《한국 도교문화의 위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3, 참조.

9) 김탁의 1994년의 논문 이후 증산사상과 도가(도교)와 관련된 논의는 학계에서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성〉에서 도교의 첫 출발을 巫覡신앙에서 발전된 것으로 보고, 중국 민간도교의 사적 전개 과정을 개략한 후 조선 후기의 민간도교의 성향에서 신종교인 증산교에 나타난 민간도교적 요소를 《태평경》에 담긴 사상과 연관시켜 고찰하고 있다.

한편 증산 사상의 도가사상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에서 나아가 증산의 化天 후 형성된 종단과 관련된 연구를 보면 김홍철의 논문에서 증산교 9개 교파에 대한 도교성을 보여 주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고, 증산의 啓示를 받아 1925년에 정산이 창건한 무극도에 나타난 도가적 요소에 대한 논의는 《대순사상논총》 14, 15집의 논문에서 〈인간개조 지상신선실현〉과 〈세계개벽 지상천국건설〉을 도가 및 신선사상과 연결지어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신선, 천국, 세계개벽이라는 용어적 관련성에 연유하여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경향이 없지 않다. 이에 이 논문은 용어적 상관성에만 머물지 않고 이능화, 김홍철, 이강오, 김탁, 정재서 등의 증산사상과 도가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와 관련해서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증산의 도가적 기본 성향을 부분적으로 수용¹⁰⁾하는 동시에, 문제의 중심을 김홍철 논문의 증산교 각 파에 대한 부분과 정재서 논문의 조선말기 민간도교로서의 증산교를 고찰한 내용에 바탕하여, 신앙단체로서의 무극도에 나타난 신앙체계인, 증산을 신앙대상(구천상제)으로 삼은 종단(무극도)에서 보이는 도교적 성격과 증산의 사상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는 데 그 초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 먼저 무극도가 도교 경전에 등장하는 〈구천응원 뇌성보화천존상제〉(姜甌山)라는 도교적 신을 신앙하는 신앙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에 주목하였으며¹¹⁾ 무극도의 시운적 출현 배경 및 신앙대상과 목적과의 관련 성하에 무극도의 도교적 성격을 증산의 도가적 주장과 연관해서 살펴 본 것이 이 논문의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 이 논문은 먼저 Ⅱ장에서 鼎山의 무극도의 신앙대상이 된 증산이 구천상제라는 면에서 증산의 도가적 성향을 본 후, 증산이 수용한 도가의 무위이화를 중심으로 하는 도가사상이 증산의 사상에서는 神道¹²⁾ 및 易사상과 관련되어 있음을 살펴보았다. Ⅲ장에서는 이 토대위에서 무극도의 출현배경, 신

10) 이와 관련 이 논문은 증산이 수용한 무위이화 사상이 증산의 사상체계 안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주목하였음을 밝혀 둔다.

11) 정재서는 반항적 민간 도교사상이 조선 말기에 기존 질서의 해체와 재통합을 목표로 하는 민중 종교 이념이 수용되어 신종교 현상으로 표출되었으며, 최제우의 동학과 강일순의 증산교를 태평도 및 오두미도 등 민간 도교가 공유했던 특징으로 밝히고 있다.(정재서, 앞의 논문, 195-212쪽 참조)

12) 우리 道는 神道임을 누차 말하였으나 깨닫지 못하는 신도와 인위적 邪道를 구별하지 못한 까닭이다. (대순진리회 교무부, 앞의 책, 39쪽)

양대상, 목적을 통해 무극도의 도교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가 주는 시사점은 무극도의 사상적 성격을 찾는 동시에 증산을 最高神으로 하는 무극도의 체계에서 도교적 요소를 증산의 주장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무극도로 종교화의 길을 가게 된 증산 종교사상의 도교적 전개를 밝히는데 一助를 할 것이라 생각한다.

II. 龜山の 道家的 傾向

무극도에 대한 도교적 이해를 위해서 먼저 증산의 도가적 성격을 보기로 한다. 조선후기의 종교 사상적 경향은 몰락하는 조선 왕조의 悲運 속에서 기존 종교들이 모두 민중의 마음에서 멀어지며 새로운 신앙적 樣態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이 시기의 종교 사상적 경향은 서양 종교의 유입과 도참설, 참위설, 십승지 사상, 정감록 등에 의해 신종교가 출현했던 일대 변혁기였다. 증산의 종교적 행적 또한 이러한 시대적, 사상적 변혁위에서 출현하였다. 이능화는 보천교(태음교)의 1세 교주로서 증산을 옥황상제의 강림으로 보았으며 仙道의 태을 주문을 증산이 금강산에서 도사에게 얻은 것으로 말하고 이 주문을 통해 開眼되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¹³⁾

이장에서는 증산의 도가적 경향에 대해 세 가지 면에서 보기로 한다. 그 세 가지는 도가적 인간완성, 무위이화, 증산의 신도에 관한 것이다. 첫째로 도가적 인간완성은 도가의 도통과 일상의 도가적 삶에 관한 것이고 둘째로 무위이화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도가의 중심사상이라고 하는 무위이화 사상이 증산에게 수용되어 어떠한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며, 세 번째로는 두 번째 논의에서 도가와 관련하여 언급한 증산의 신도의 양상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제시해 보았다.

첫째로 증산의 사상에 나타나는 도가적 인간완성에 대한 면을 보기로 한다. 증산은 자신이 밝힌 인간 완성인 道通이 道家的 완성임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난날에는 도통이 나지 아니 하였으므로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기울였으나 음해를 이기지 못하여 성사를 이룩하지 못했도다. 금후에는 도통이 나므로 음해하려는 자가 도리어 해를 입으리라.¹⁴⁾

위의 내용에서 증산이 앞으로 도가에서 도통이 나오게 된다는 말은 증산의 도

13) 이능화 輯述/ 이종은 譯註, 앞의 책, 337-344쪽 참조.

14) 《典經》, 교운 1장 40절.

통이 도가적 완성임을 보여 준다. 증산은 도통에 대해 과거 도가에서 도통에 힘을 썼으나 도통이 나오지 않은 것이 타인의 陰害에 의한 것이라 하고 이제는 증산의 종교 체계 안에서 음해하는 이가 해를 입고, 도통에 힘을 기울이면 자신의 가르침 안에서 도가의 도통이 나옴을 말하였다. 이것은 증산의 종교적 가르침의 목적이 도가적 인간 완성에 있음을 보여주는데 다음 내용에서도 볼 수 있다.

나를 좇는 자는 영원한 복록을 얻어 불로불사하며 영원한 선경의 낙을 누릴 것이니 이것이 참 동학이니라. 弓乙歌에 朝鮮江山 名山이라. 道通君子 다시 난다”라 하였으니 “또한 나의 일을 이름이라 동학 신자간에 大先生이 갱생하리라 고 전하니 이는 代先生이 다시 나리라는 말이니 내가 곧 代先生이로다.¹⁵⁾

증산은 동학을 창도한 수운에게 계시를 내렸으나 수운이 유교적 典憲에 빠져 대도의 참뜻을 밝히지 못했다하고 참동학을 주장했다. 그런데 증산의 참동학은 위의 예문에서 不老不死하며 仙境의 樂을 누리는 것으로 요약된다. 여기에서 불로불사와 선경은 도가적 이상세계에서 이루려는 이상향이다. 즉 증산의 참동학은 도가적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으로 동학신자들이 大望하는 수운의 갱생이 아닌 수운을 대신해서 증산이 그 대망을 이루는 일이라는 것이다. 또 증산이 弓乙歌라는 비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도통군자를 이루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궁을가라는 비결서의 인용이라든가 도통군자가 출현한다는 것은 참동학의 도가적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진 주장이 된다. 결국 영원한 복록과 선경의 낙을 누리게 될 도가적 인간 완성에 의한 도통군자는 증산에게 있어서는 증산의 일을 선양 발전시킬 존재들로 나타나는데 이는 증산의 일련의 종교적 聖業이 도가적 방식에 의한 인간 완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 준다. 다음으로 증산은 자신을 따르는 從徒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道家的 삶이 이루어져야 됨을 강조하였다.

상제께서 식사시간이 지나서 최 창조의 집에 이르셨도다. 그의 아내는 상제께서 드나드시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겼노라. 이날도 밥상 차리기를 싫어하는지라. 상제께서 창조에게 가라사대 “도가에서는 반드시 아내의 마음을 잘 돌려 모든 일에 어긋남이 없게 하고 순종하여야 복되나니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아내가 문밖에서 엿듣고 보이지 않는 사람의 속 마음을 보신 듯이 살피심에 놀라 마음을 바로 잡으니라.¹⁶⁾

위의 예문은 증산이 일상 가정생활 속에서 증산의 도가적 사상이 구현되어 가

15) 《典經》, 권지 1장 11절.

16) 《典經》, 행록 4장 7절.

정이 화목하게 되기를 바라는 면을 보여 주는데 증산은 자신을 따르는 최창조라는 중도의 가정을 道家로 말하고 있다. 이는 증산이 자신의 가르침을 도가적 관점에서 전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둘째로 무위이화와 상관성을 갖는 증산의 신도사상을 보기로 한다. 증산은 유불선과 음양 참위 등 각종 제 사상들의 精髓를 걷어 취하고 자신의 독창적 종교행적인 〈천지공사〉를 통해 새로운 주장을 가미하여 우주적 혼란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사상을 내어 놓았다. 이러한 사상은 증산의 化天과 화천 후 계시에 의해 정산이 정해져 인간 세상에서 증산의 사상에 대한 포교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게 된다.

한편 증산의 도가적 성격이 무극도 까지 이어지며 나타나게 되지만 증산의 도가적 사상이 도가와 같은 것이라고 한정지을 수만은 없는데 증산의 도가적 경향이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증산의 도가적 경향에서 주목되는 특징은 도가의 無爲而化 사상이 증산의 사상 안에 수용되어 기존 신도¹⁷⁾사상과 緣脈되며 증산 사상적 신도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동학에서도 무위이화는 동학의 도에 본체에 이르는 것이나 무위이화가 도가적 쓰임과 같이 아무 것도 없이 자연한 가운데에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수행과 노력이 전제될 때 비로소 자연한 가운데에서 化해 나온다고 나타난다.¹⁸⁾ 증산 사상적 신도는 증산을 최고신으로 해서 체계화된 신적 질서를 가리키며 도가의 주장인 무위이화와 관련해서 증산의 신도는 《典經》에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神道로써 크고 작은 일을 다스리면 현묘불칙한 공이 이룩되나니 이것이 곧 무위화니라. 신도를 바로잡아 모든 일을 도의에 맞추어서 한량없는 선경의 운수를 정하리니 제 도수가 돌아드는 대로 새 기틀이 열리리라. 지나간 임진란을 崔風憲이 맡았으면 사흘에 불과하고, 震默이 당하였으면 석 달이 넘지 않고, 宋龜峰이 맡았으면 여덟 달에 평안하였으리라. 이것은 다만 선, 불, 유 의 법술이 다른 까닭이니라. 옛적에는 판이 좁고 일이 간단하므로 한 가지만 써도 능히 광란을 바로 잡을 수 있었으되 오늘날은 동서가 교류하여 판이 넓어지고 일이 복잡하여 저서 모든 법을 합하여 쓰지 않고는 혼란을 능히 바로 잡지 못하리라.¹⁹⁾

증산은 선불유 법술이 당대 문제를 해결하기에 부족함을 말하고 그 해결책으로서 신도사상을 주장하였다. 또 증산이 仙之胞胎, 佛之形體, 儒之浴帶라 하고 冠

17) 神道라는 말은 《周易》의 觀卦에 나타난다. “觀天地神道 而四時不忒 聖人以神道設教 而天下服矣”(《周易》, 보경문화사, 1994, 229쪽)라 나오고 또 이를 풀이 한 傳에 “天道至神 故曰 神道”라고 하였다.

18) 윤석산, 〈동학에 나타난 도교적 요소〉,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337쪽. 동학에서 무위이화는 지상신선이 되는 선행 요건으로 보고 있다.

19) 《典經》, 예시 73절.

旺과 兜率에 대해 밝힌 부분에서 포태양생육대에 대해 선불유 각각의 天地의 虛無, 天地의 寂滅, 天地의 以詔가 있었고 이제 冠旺을 兜率로 이룬다는 내용²⁰⁾은 위의 예문의 동서양의 교류로 판이 커진 세상을 바로 잡는 새로운 법리로서 仙佛儒가 아닌 신도사상이 유효하다는 것과 관계된다. 한편 무위이화는 玄妙不則한 功을 이루는 것인데 지금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仙佛儒 법술을 모두 포괄하여 우주적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며, 이는 神道에 의해서 가능하고 신도는 仙境의 운수를 정하는 법리이고 度數에 따라 새 기틀이 열리는 면모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증산은 자신의 도를 신도라 밝히고 무위이화라 하였는데 주지의 사실로 무위이화는 도가의 중심 주장이며 그 의미가 증산에 의해서 다음과 같이 다시 부연 설명되고 있다.

나는 生長斂藏의 四儀를 쓰나니 이것이 곧 無爲而化니라.²¹⁾

무위이화는 천지가 낳아 길러 거두어 감추는 생장염장의 원리와 같은 의미로 나타나는데 이 생장염장은 신도에 의해 신적 존재가 運用하는 우주의 원리에 의해 만물이 생겨나 자라 거두어지고 감춰지는 元亨利貞²²⁾하의 春夏秋冬 四時의 작용이다. 그리고 결국 이 원리가 구천 상제로 臨御하다 강제한 증산에 의해 주도된다는 것이다. 이는 증산의 사상 안에서 도가의 무위이화 사상이 수용, 발전되어 神道, 四儀 등으로 부연 설명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향후 무극도의 도가적 주장들도 이와 같은 토대 위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볼 수 있다. 증산의 사상에서 도가적 경향과 신도가 습합되어 천지공사의 역동성을 제시해 주고 있는 면은 증산이 전무후무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주장에 토대한 관점으로 단순한 선천 사상의 수용에 그치지 않고 기존 요소들이 開闢과 改造의 원리 하에 증산에 의해 승화 발전되어 그 면모를 쇄신하고 있는 것이다. 즉 증산이 先天 遺法의 精髓를 거두어 쓰면서도 이에 머물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사상 체계를 세우겠다는 주장이 위의 예문에서 무위이화가 生長斂藏의 四儀를 쓰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아가 증산이 말한 무위이화가 생장염장으로 설명되며 신도라는 질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증산의 도가적 특성으로 주목되어야 할 점이다. 요컨대 신도에 대해 증산이 도가의 무위이화를 연계하여 한 차원 높게 승화 創出시켜 玄妙不則한 공을 이루는 것이고 생장염장의 법이라 하였는데 이는 도가의 주장을 주체적으로 신도와 연관지어 자신의 사상적 특질로 밝힌 일이 된다.

20) 《典經》, 교운 1장 66절; 《현무경》, 24면.

21) 《典經》, 교법 3장 27절.

22) “元亨利貞 天地之道”. 《典經》, 교운 2장 42절, 〈運合呪〉.

앞에서 증산의 사상에 나타난 도가적 성향에서 무위이화와 신도가 상관된 면에서 증산의 사상을 보았다. 아울러 신도사상은 증산에게 있어서는 중국 상고 신도시대의 복희씨에 의해 전해진 易사상과 관련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상제께서 내장산에 가셨을 때에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
伏 道人何事多佛歌 라고 읊으셨도다.²³⁾

위의 漢詩에서 증산은 조선후기의 현실에서 종교적으로 佛에 치우친 도인들의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내장산에서 內藏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에 의거하여, 내장산이 상징적으로 다가올 후천세계인 金天의 運紀를 胞胎하고 仙境의 物像들을 감추고 있는 것으로 보면서 도의 근원이 태호 복희씨에 있음을 말하였다. 이는 후천의 질서 체계가 易의 원리에 기틀하여 도출되는 세계임을 보여주는데 복희의 시대는 신도시대에 해당된다.

일반적으로 신도에 대해서는 仙敎, 古神道, 神明사상 등으로 언급되며 중국사상과의 차별화되는 우리 민족 고유의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며 고신도의 仙의 의미와 도가의 선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도 있다.²⁴⁾ 그러나 이는 주로 우리 민족의 원시종교와 관련된 논의이다. 한편 신도는 일본에서 태곳적부터 존재했으며 유교 불교 기독교 등 외래종교와 대립 교섭하면서 그것들의 영향 하에 변천 발달해 온 일본 고유의 종교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데 신도라는 말이 교학적인 의의를 지니게 된 것은 그것이 불교 교리와 습합함으로써 兩部(兩部) 신도 이론이 형성되면서부터 이다.²⁵⁾ 일본의 신도는 집단적 제사의 형태인 원시신도로부터 도교와 유교가 전래 습합되면서 그 면모를 달리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세에는 伊勢神道, 吉田神道 등이 나왔고 근세의 儒家神道 및 근대의 國家神道가 출현하기도 했다²⁶⁾고 나타난다. 중국에서는 神道사상이 上古부터 殷나라 末을 거쳐 東周 이전까지 유지 발전되어온 사상체계로 나타난다.²⁷⁾ 그런데 증산의 신도사상

23) 《典經》, 행록 2장 5절.

24) 김낙필, 〈한국도교연구의 중요쟁점〉, 《한국의 신선사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22-29쪽.

25) 村岡典嗣 지음/ 박규태 옮김, 《일본신도사》, 서울, 예문서원, 1998, 15-16쪽. 신도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日本書紀》의 요메이(用明) 천황권: 천황이 불교를 믿고 신도를 존중했다(天皇信佛法 尊神道)는 내용이다.

26) 무라카미 시게요시 外/ 최길성 편역, 《일본의 종교》, 서울, 예전, 1993, 27·33·98·113·134·158쪽 참조.

27) 高懷民 著, 송실대동양철학연구실譯, 《中國古代易學史》, 서울, 송실대출판부, 1994, 242-243쪽 참조.

은 중국의 복희시대의 신도적 체계와 상관됨을 볼 수 있다. 주지의 사실로 복희씨는 易을 전해준 존재이다. 이것은 역의 사상이 증산의 종교 사상에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易은 복희의 符號易, 문왕의 筮術易, 공자의 儒門易, 노자의 道家易 등으로 변화 발전하여 왔다. 복희씨 이후부터는 시대사조가 한결같이 人道로만 나아갔으니 문왕이 8괘로는 부족하다고 여겨 64괘로 늘렸다. 공자는 卦象만으로는 명료치 않다고 생각하여 十翼을 덧붙였다²⁸⁾는 것은 老子를 필두로 하는 도가의 사상이 易사상의 전개 과정에서 변환된 것임을 보여 주는데 이는 도가사상이 증산이 선천시대의 祖宗이라고 말한 복희의 역사상에 귀결되고 있음을 말해준다.²⁹⁾

또 易사상은 後漢 이후로 象數學의 경향으로 발전하였는데 이것이 증산이 말한 度數와 상관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시대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증산의 역에 대한 긍정적이고도 높은 평가는 知識에 있어 宋末 數理철학의 대가인 邵康節(1011-1077)에 대한 好評과 度數라는 말로 표현되는 증산의 천지공사 그리고 정산의 포교 50년 공부에 나타나는 각종의 도수 공부를 통해 그 사상적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정산 또한 증산의 신도와 易사상에 基底하여 증산의 가르침을 펴던 중에 있었던 마하사 공부에서 佛像이 고개를 숙이는 神異한 異蹟을 보이며 증산의 易思想的 경향을 담고 있는 위의 증산의 내장산 詩를 인용하며 자신이 종통계승자로서 증산의 가르침을 풀어 나가는 종교적 행적을 하고 있음을 보였다. 아울러 佛像이 고개를 숙이는 이적이 일어난 마하사 공부는 정산이 옥황상제의 신격위로서 구천상제를 신앙의 대상으로 정해 증산이 짜 놓은 도수를 정산이 풀어 大業을 이루어 나가는 神界의 眞法을 나타낸 것이며, 이는 증산에서 정산으로 연계되는 神壇의 질서를 나타내주는 내용이 된다. 그런데 증산은 太昊 伏犧氏에서 과거로 더 나아가 천황·지황·인황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중도들에게 天皇 地皇 人皇 후 天下之大金山 母岳山下에 金佛이 能言하고 六丈金佛이 化爲全女이라. 萬國活計南朝鮮 淸風明月金山寺 文明開花三千國 道術運通九萬里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³⁰⁾

천황·지황·인황으로부터 시작된 것들이 증산 代에 와서 마무리되어 통합 창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증산이 현재 《십팔사략》에 기록상 남아 있는

28) 高懷民 著/ 송실대동양철학연구실 譯, 앞의 책, 355쪽.

29) 역의 도가사상으로서의 위치는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陳鼓應 지음/ 최진석, 김갑수 이석명 옮김, 서울, 예문서원, 1996)에 나타난다.

30) 《典經》, 예시 14절.

최초의 존재인 천황으로부터 증산 이전까지 세상의 원리를 총체적으로 認知하여 혼란을 匡正하고 새로운 우주적 차원의 진리를 증산이 선포하기위해 스스로 금산사 미륵금불에 의거하였다가 인간으로 화현하여 천하광구의 천지공사를 행하였음을 보여 준다. 그 결과로 우주는 〈문명개화 삼천국〉, 〈도술운통구만리〉의 모습으로 開闢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복희씨 이전의 사상까지도 모두 포괄하고 있는 증산의 사상체계를 보여주는데 앞에서 살펴 본 무위이화는 天皇시대와 관련해서 《十八史略》에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天皇氏 以木德王 歲起攝提 無爲而化³¹⁾

천황씨가 무위이화했음을 볼 수 있다. 천황씨의 무위이화는 후대 도가에서 말하는 무위이화와 다른 차원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도리어 세월이 흘러 후대로 갈수록 천황씨 시대의 무위이화 원리가 약화되었으며 이에 무위이화를 회복하고 춘추시대 혼란을 극복하기위해 도가의 무위이화 사상이 나온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십팔사략》에는 천황씨 뒤에 지황씨와 인황씨가 등장했으며 천황·지황·인황 이후에는 유소씨가 나무를 엮어 보금자리를 만든 것으로 적혀 있고 수인씨는 처음으로 火食을 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복희가 등장한다. 천황으로부터 복희에 이르기까지의 사상은 無爲而화와 易이 主要함을 볼 수 있다.³²⁾ 증산이 太古 천황·지황·인황으로부터 자신에게 이르는 시기를 말한 것과 천황씨가 무위이화했다는 내용을 연계해 보면 증산의 도가적 성향인 무위이화가 천황씨에게 까지 연맥되어 易사상, 신도사상 등이 함께 증산의 도가적 성향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증산의 사상체계에는 원시반본의 원리아래 무위이화, 신도사상, 복희의 易사상 등이 수용되고 있는데 때론 수용된 사상들이 통합, 창출되는 과정을 거쳐 천지공사를 행한 증산의 權能 안에서 驅使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증산의 신도사상 안에 도가사상, 易사상 등이 습합되며, 새로운 체계를 창출한 것³³⁾으로 무극도의 도교적 성격을 이루는 도대가 된다.

셋째로 도가사상과 관련 있는 증산의 신도사상이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31) 天皇은 木德으로써 王노릇 하여 歲(歲)가 寅(攝提)에서 일어나 함이 없어도 되게 하였다. (《標註 十八史略 讀本》, 서울, 여강출판사, 1986, 9쪽)

32) 도가사상에 등장하는 무위이화가 천황씨가 쓴 법리로 나타나는 것은 증산이 상고 천황씨에게 지 연원하여 자신의 위치를 밝힌 내용에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위치를 밝힌 천황·지황·인황 이후 자신이 靈으로 머문 천하의 큰 금산사를 말하고 강씨로 태어날 것을 밝힌 《典經》의 내용에서 그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33) 나의 공사는 옛날에도 지금도 없으며 남의 것을 계승함도 아니요, 운수에 있는 일도 아니요, 오직 내가 지어 만드는 것이니라.(《典經》, 공사 1장 3절) 이는 기존 세계의 법리와 차별된 체계를 보여 준다.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증산이 주장한 신도는 증산을 最高神으로 하여 주재되는 것이며 神이 우주적 일은 물론이고 인간에게 관계하는 것으로 신도회복의 필요성, 신과 관련된 주술성, 신의 인간에 대한 살핌 등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한다. 먼저 증산은 선천 문제의 핵심적 요인이 신도의 파괴에 있음을 자신의 大巡을 말한 부분에서 주장했다.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 원시의 모든 신성과 불과 보살이 회집하여 인류와 신명계의 이 겁액을 구천에 하소연하므로 내가 西洋 大法國 天啓塔에 내려와 천하를 大巡하다가 이 東土에 그쳐³⁴⁾

大巡이라는 증산의 행적은 위의 예문을 볼 때 문명이 물질에 치우쳐서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져 발생한 우주 전체의 모든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이전에 보고 접할 수 없었던 방법과 사상에 의해 萬有의 원한을 풀어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며, 相生이라는 새로운 원리에 따라 우주적 패러다임을 바꾸어 순환 발전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물질문명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신도를 회복하는 성업인 大巡의 의미는 천지인 삼계를 총괄하는 범주에서 모든 우주의 만상만유를 通察하고 統攝하여 신과 인간의 調和的 관계를 아래 우주적 造化를 이룬다는 종교적 의미를 담고 있다. 이처럼 증산이 대순이라는 종교적 구원의 행적을 이루는 초석이 신도의 회복에 있다는 것은 신도가 증산의 사상체계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증산의 신도사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를 보기로 한다. 주지의 사실로 증산은 서양 물질문명에 의해,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긋나 도의 근원이 끊어져 신성·불·보살들이 하소연하여 降世하였는데 무엇보다 증산이 최초로 행한 시루산 공부(1900)에서 이루어진 핵심적 요소는 乖離된 천도와 인사의 상도를 회복하기 위해 신명계의 질서인 神道를 바로잡는 것이며, 이는 眞法呪, 四十八將, 二十八宿呪, 五方呪 등 神의 名稱과 그 位階를 나타낸 呪文을 다룬 것이었다. 또 증산의 神觀은 도가적 신관과 그 맥락이 통하고 있는데 이러한 神觀위에서 증산은 신을 부러 자신의 종교적 행적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난다.

34) 《典經》, 교운 1장 9절.

상제께서 계묘년 정월에 날마다 백지 두 서너장에 글을 쓰거나 또는 그림(符)을 그려 손이나 무우에 먹물을 묻혀 그것들에 찍고 불사르셨도다. 그 뜻을 종도들이 여쭙어 물으니 “그것은 천지공사에 신명을 부르는 부호이노라”고 알려주셨도다.³⁵⁾

증산은 천지공사에서 천지신명을 불러 일을 진행했는데 이는 신을 불러 응하게 하는 도가의 주술적 술법을 보여준다. 또 신도사상은 귀신은 진리에 지극하니 귀신과 함께 천지공사를 판단한다는 말과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 기국을 시험한다는 내용 그리고 유불선의 道通神들이 인간이 닦은 바대로 도통을 열어 준다는 표현처럼 인간과 신의 調化的 관계로 전개되어 중지의 神人調化와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다음으로 증산이 주장한 신도를 인간의 일상 가정사와 관련해서 보면 아래와 같다. 증산은 앞의 최창조의 일에서와 같이 家庭에서 도가적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면과 함께 나아가 가정생활에 신명이 응하여 家庭事를 살피고 있음을 말하였다.

상제께서 박공우가 아내와 다투고 구릿골을 찾아왔기에 별안간 꾸짖으시기를 “나는 독하면 천하의 독을 다 가졌고 선하면 천하의 선을 다 가졌노라. 네가 어찌 내 앞에 있으면서 그런 참되지 못한 행위를 하느냐.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서 각 가정을 드나들면서 기국을 시험하리라. 성질이 너그럽지 못하여 가정에 화기를 잃으면 신명들이 비웃고 큰 일을 맡기지 못할 기국이라 하여 서로 이끌고 떠나가리니 일에 뜻하는 자가 한시라도 어찌 감히 생각을 소홀히 하리오” 하셨도다.³⁶⁾

증산은 아내와 다툰 박공우에게 이제 천지신명이 운수자리를 찾아 각 가정을 드나들며 기국을 시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가정을 이루는 개개의 인적 구성원의 도가적 삶만이 아니라 위의 예문의 증산의 주장에 따르면 이제 새로운 원리 하에 신명이 인간과 같이 하고 있으며, 특히 인간이 도가적 도통을 이루는데 있어 신명의 심판이 작용함을 보이고 있다. 이는 증산이 도가적 생활만이 아니라 신명과 인간이 함께하는 調和的 삶을 강조한 것이며 신명이 일련의 인간의 삶에 윤리적으로 관여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이것은 증산이 신도라는 질서체계를 통해 자신의 천지공사라는 종교적 성업을 추진해서 仙境을 만들고자 했음을 보여 준다.

요컨대 개화기 西勢東漸의 새로운 동서양 관계 하에서 仙佛儒 법술의 통합적

35) 《典經》, 공사 1장 10절.

36) 《典經》, 교법 1장 42절.

적용이 요구되는데, 증산은 무위이화라는 도가적 원리와 의 상관성 아래 한 차원 높은 사상으로서는 각종의 문제로 질서가 무너진 신도를 회복시키고 신도를 다시 調定하여 증산사상적 신도를 통해 다가올 세상에 맞는 새로운 원리를 도수에 따라 추진하여 각종의 우주적 문제들을 해결하여 仙境을 이루고자 하였다.

Ⅲ. 甌山の 道家的 性格으로 본 无極道の 道敎性

증산교 각파의 도교 현상은 태을교, 초기 보천교, 초기 선도교, 증산교 본부, 증산법종교, 순천도, 미륵불교, 인도교, 대한불교용화종 등 9개 교파만이 아니라 50여개의 많은 교파의 사상과 제도 의례 속에 도교적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데³⁷⁾ 도교적 요소는 교단의 사상과 수행 등 다양한 면에서 나타난다. 김홍철 논문에서 다룬 증산 관련 9개 교단의 도교적 요소를 보면 증산의 신앙대상화(옥황상제, 통천상제), 각종 신명의 봉안, 태을주 수련, 辟穀, 치성, 부적, 칠성신앙, 도가적 導引修練 등으로 이것은 증산의 도가적 경향이 후대에 출현한 교단으로 이어져 도교적 성향으로 표출되었음을 말해 준다. 이와 관련해서 이 장에서는 증산의 계시로 득도한 정산의 무극도 敎團에 대한 도교적 성격을 교단의 출현배경, 교단의 신앙대상, 교단의 목적 등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이를 위해 정산의 사상이 증산에게 淵源해서 전개된다는 면을 본 후 증산의 사상에 근원한 정산의 무극도의 도교적 요소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정산의 사상이 증산에 淵源하고 있다는 점을 보면, 무극도의 출현은 증산의 化天 후 증산의 포교 공사인 후계자의 50년 포교공부 하에 敎理化를 거쳐 대중들에게 다가감으로써 초기의 원시 종교집단 형태³⁸⁾에서 새로운 체제를 거쳐 증산의 종교적 체제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는 종교 현상이었다. 교리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한다. 그 중 하나는 계시나 이야기 또는 경전이 제시하는 내용을 일관성 있게 정리하는 것이다. 교리의 또 다른 기능은 우주를 초월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신화가 언급하는 내용을 확증하는데 있다. 종교가 교리를 갖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종교의 주장을 각 시대의 지배적인 지식과 조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교리의 중요성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성찰하고 자극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데 있다. 공동체의 경계를 설정하는 기능이다.³⁹⁾ 증산이 화천한 후 가르침을 교리화하는 포교공사를 어떻게 보았는가와 무극도의 도교적 성격을 살펴보는 일은, 정산이 증산의 啓示에

37) 김홍철, 앞의 논문, 321-323쪽.

38)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종교사상》,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180-191쪽 참조.

39) 니니안 스마트 지음/ 김윤성 옮김, 《종교와 세계관》, 서울, 이학사, 2002, 138-144쪽 참조.

의해 득도하였으므로 증산의 종교사상에서 논의의 출발을 삼는다. 즉 대순사상의 전개는 증산의 천지공사에 그 기틀을 두고 있으므로 정산과 牛堂(朴漢慶, 1917-1996)의 종교적 활동의 연원과 원천은 증산의 천지공사에 따른 도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무극도 교단의 종교사상적 성격은 증산의 가르침이 어떠한 사상적 경향을 띄고 있는가가 중요하다. 따라서 이장에서의 논의점인 무극도의 도교성을 보기 전에 증산의 도가적 경향을 먼저 앞장에서 살펴 본 것이다.

증산으로부터 정산에게 이어지는 敎運의 전개를 정산이 종통을 받아 증산이 짜놓은 도수를 풀어나갔다는 면을 통해 정산의 종교적 행적이 증산의 예정된 도수에 따라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정산은 마하사(부산 동래)에서 다음과 같은 종교적 행적을 수행하였다.

도주께서 기축년 겨울에 동래 마하사의 방 한간에서 정화수 스물 네 그릇을 받들고 사십 구일을 한 도수로 정하시고 공부를 하셨도다. 李光石이 대웅전에서 도주를 위해 발원 염불을 올리니라. 사십 구일이 거의 될 무렵에 도주께서 승녀와 시종자에게 “법당의 불상을 자세히 보았느냐”고 물으시므로 그들이 달려가 보니 불상이 머리를 숙이고 있는도다.(중략) 시종자가 그대로 하니 시냇물에 무지개가 서는 도다. 도주께서 마하사에서 도수를 마치고 도장에 돌아오시니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느니라. 도주께서 그 자리에서 少年才氣拔天摩 手把龍泉幾歲磨 世界有而此山出 紀運金天藏物華 應須祖宗太昊伏 道人何事多佛歌의 상제의 글귀를 외우시고 “상제께서 짜 놓으신 도수를 내가 풀어나가노라”고 말씀하셨도다.⁴⁰⁾

정산의 마하사에서의 종교적 수행(1949)과 그 일이 마쳐진 후 정산이 증산의 漢詩를 인용해서 자신이 증산이 짜놓은 도수를 풀어나가는 위치에 있음을 밝힌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불상이 고개를 숙이는 이적이 일어난 면에서 정산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게 하는데 정산에게 佛들이 귀의하여 동참함을 나타내는 것이며⁴¹⁾, 증산이 생시에 언급한 한시의 내용에서 도인들이 불교에 치우치고 도의 시작이 복희씨에 있음을 모른다는 내용에서도 같은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위의 내용은 증산을 연원으로 정산이 종통계승자로서 증산의 도수를 풀어나가는 위치에 있음을 보여준다.

무극도의 창건은 증산의 가르침을 교리화하여 펴는데 있어 중요한 정산의 종교적 聖業이 된다. 정산이 1909년 奉天命을 하고 1917년 感悟得道하여, 封書를 받고(1919) 운기적으로 이로우이 신원에 있음(1923)을 밝힌 것은 모두 무극도라는 교단을 만들어 증산의 신격위를 정해 신앙대상으로 확정하고 교리를 중지, 신

40) 《典經》, 교운 2장 47, 48절.

41) 고남식, 앞의 논문, 20쪽.

조, 목적 등으로 정하기 위한 趣旨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정산이 계시에 의해 득도한 이유인 것이다.

또한 증산은 시간의 순환 속에서 새로이 일어나는 세상의 변화를 주체적으로 직시하여 19세기말에 시대적 운기를 천지가 성공하는 때라 하고 모든 이치를 모아 크게 이루는 것을 開關이라 주장하였다. 차후 이러한 개혁 사상은 무극도 목적에서 정신개혁과 세계개혁으로 나타나고 인간에 대해서는 改造로 표현되어 있다. 이에 증산은 개혁의 운기 속에 향후 無極의 大運이 열리게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향후 새로운 時運이 세상에 전개됨을 말한 것이다.

상제께서 김형렬에게 “이제 말세를 당하여 앞으로 無極 大運이 열리나니 모든 일에 조심하여 남에게 죄를 짓지 말고 죄를 멀리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天地公庭에 참여하라.”고 이르시고 그에게 神眼을 열어주어 神明의 會散과 聽令을 참관케 하셨도다.⁴²⁾

증산이 無極 大運이 열리니 마음을 바로 해서 天地公庭에 참여하라고 한 후 神眼을 열어 神明의 會散과 聽令을 참관케 한 것은 신의 세계의 질서인 신도의 일면을 제자에게 보여준 일이 된다. 또 무극의 큰 운이 열리게 된다는 것은 易의 원리에 입각해 새로운 운기가 到來함을 말한 것으로 향후 증산의 宗統을 계승한 정산이 창건한 無極道에 의해 펼쳐지는 大運을 말한다.

그리고 증산의 도가적 성향 하에 창건된 무극도는 도교적 성격의 교단으로 그 신앙체계를 갖추게 되는데 이 논문에서는 무극도의 도교적 측면을 첫째 시운과 관련된 무극도의 출현 배경, 둘째 무극도의 신앙대상, 셋째 무극도 목적 중 신선 실현과 천국건설이라는 세 가지 면에서 보기로 한다.

첫째로 무극도의 출현과 관련하여 무극도의 도교적 성격을 보기로 한다. 정산은 먼저 무극도를 창건하기 이전인 1923년(癸亥年)에 4617년을 가리키는 시간의 단위인 元이 마무리 되고 새로운 시운이 열리게 됨을 〈傳教〉라는 글에서 선포하였는데 이는 과거 한 기간(4617년) 동안의 원이 513년을 주기로 어떠한 인물과 종교가 역사 속에 출현했는가를 밝힌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전교의 원문만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도주께서 그후 周旋元과 周旋元補란 두 직책을 마련하고 전교의 임무를 담당하게 하시니라. 이해 유월 치성일 전날에 (중략) 여러 사람들이 회문리에 모인 자리에서 도주께서 “금년이 利在新元 계해년이라”고 말씀을 마치고 전교를 내리시니라.

42) 《典經》, 예시 17절.

傳 教

1. 七閏十九歲爲章 二十七章 是會當⁴³⁾
2. 三會爲統 三統爲元 循環往復 互無彊⁴⁴⁾
3. 四千六百十七年前丁巳 軒轅立極 肇斯元⁴⁵⁾
4. 萬像萬事 皆有是 諸法諸書 總此源⁴⁶⁾
5. 傳器項譽勛華禹 初統初會 世世聖⁴⁷⁾
6. 日出萬暈同發明 春回品物共華盛 初統之中 降中季 聖不承 承但一時⁴⁸⁾
7. 禹後有湯 湯後文 一會一聖 應會期 中統由來 世漸降 聖不道行 但教傳⁴⁹⁾
8. 釋後有孔 孔後耶 一會一教 各門筵⁵⁰⁾
9. 季統 教亦無肇聖 惟有述 聖斷啓來⁵¹⁾(교운 2장 26절)

위의 전교 내용은 설명이 되는 按 부분을 생략하고 원문만을 인용한 것이다. 위에서 1과 2는 曆數에 의한 시간의 단위인 章, 회, 통, 원의 관계를 보인 것으로 일장은 19년이다. 일원은 삼통(1통은 9회이며 1539년)이며 구회(1회는 27장이며 513년)이고 4617년이다. 그런데 曆數 원리는 시간성으로 드러나는 천의 존재 구조일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 필요한 모든 문물제도까지도 형성시키는 근본 원리⁵²⁾로 나타난다. 전교에서는 初統시대의 인물을 聖스러운 존재들로 말하고 仲統시대의 석가 공자 야소에 대해서는 하나의 가르침들을 전한 존재로 표현하고 있

43) 七閏이 19년에 있는 것이 章이 된다. 27장 이는 會에 해당된다.

44) 3회는 統이 된다. 3통은 元이 된다. 순환왕복이 서로 강제성이 없다.

45) 4617년 전 정사년에 현원(황제)이 왕위에 올라 비로소 원이 시작됐다.

46) 萬象萬事が 모두 이(황제)에 있었고 諸法諸書가 모두 이에 근원한다.

47) 소호 금천씨, 전옥 고양씨, 제곡 고신씨, 요, 순, 우에게 전해지니 초통의 초회에는 대대로 성스러운 분이 계셨다.

48) 해가 뜨면 만 갈래 햇살이 함께 밝음을 발하고 봄이 돌아오면 모든 물상들이 함께 빛나 무성해진다. 초통의 중간인 중회와 계회로 내려가면 성스러운 분이 이어지지 않고 이어지더라도 다만 한 때였다.

49) 우 뒤에 탕이 있었고 탕 뒤에 문왕이 있었다. 일회에 한 성스러운 분이 회에 응한 기간이었다. 중통이 말미암아 와서 세대가 점차 내려감에 성스러운 분이 도를 행하지 않고 다만 가르침만이 전해졌다.

50) 서가여래 뒤에 공자가 있었고 공자 뒤에 야소(예수)가 있었다. 일회에 한 가르침이 각각 교단을 이뤘다.

51) 계통에도 가르침이 또한 성스러운 분에서 시작되지 못하고 오직 구술만이 있었다. 성스러운 분이 끊긴 채 열려 왔다.

52) 김만산, 〈역학의 시간관〉, 《주역의 현대적 조명》,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93, 154쪽.

다. 나아가 季統시대에는 석가 공자 야소(예수)의 가르침만이 전해진 것으로 말하고 있는데 佛은 梁나라, 야소교는 羅馬 法王이 공인하여 전해지고, 다만 신유학은 堯梁지방에서 여러 賢人들이 한 때 도를 전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중통시대에 석가, 공자, 야소가 있었고 불교, 신유학, 야소교가 각각 차례대로 계통시대에 흥기했는데 일반적으로 도교적 가르침의 전래는 드러나 있지 않다. 물론 초통시대에 黃帝, 五帝, 禹, 湯, 文王 등이 등장하였는데 易사상과 함께 이 시기의 도가적 경향을 볼 수 있다. 위의 전교의 9번에서 耶蘇敎의 오백여년이라는 한 會동안의 興起 이후⁵³⁾, 4617년 동안의 한 원이 마무리되고 새롭게 시작되는 원(1923년)이 2년 후의 무극도의 출현(1925년)과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가의 시조로 평가되기도 하는 황제의 인류사 속의 등장과 가르침의 전수는 증산의 원시반본 사상에 依據할 때, 새로운 원의 시작과 함께 출현한 무극도의 사상적 경향을 암시해 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儒家가 요, 순, 우, 탕, 문, 무, 주공을 얘기할 때 道家는 그 보다 앞선 黃帝를 내세운다. 또한 이 黃老術은 漢代에 하나의 주요한 학술사상으로 나타나게 된다.⁵⁴⁾ 과거 元의 시작인 초통의 초회에 최초로 등장하는 黃帝는 신도시대에 해당된다. 黃帝가 살았던 신도의 시기가 중국에서 中古時代 이래로 人道의 시기로 넘어간 후 야소교를 마지막으로 한 원이 마무리 된 것이다. 과거 중국사를 도교와 관련해서 보면 後漢이후 혼란한 시기에 태평도, 오두미도, 천사도, 상청과, 태일교 등 다수의 도교적 형태의 종파가 등장한 바 있다.⁵⁵⁾ 한편 조선 후기의 민간도교활동은 수입된 민간도교와 정감록 등을 중심으로 한 참위설적 도교이다. 조선 후기에는 壬·丙 兩亂의 여파로 민생이 어려워지고 집권층 내부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몰락한 반체제적 사족계층과 민중들 사이에서 왕조의 운명을 비판적으로 진단하고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점치는 참위설적 도교 사조가 유행하였다.⁵⁶⁾ 이러한 시기에 증산은 자신이 살던 시대를 천지가 성공하는 개벽의 시기라 하였으며 이는 原始返本 시대로 표

53) 9번 원문에 대한 해설은 다음과 같다.

여기에 야소교가 원의 마지막 기간인 계통의 계획 기간에 융성한 종교로 나타난다.

“按 季統者 黃帝即位 後三千七十八年 以後之季統也 距今一千五百年前 六朝及新羅之時 佛道中興 其後 五百年 距今略一千年前 大宋之時 濂洛諸賢 一時傳道 其後五百年 以後羅馬法王 以耶蘇敎爲西洋之盟主 佛梁儒宋耶羅馬 一教一昌 應會回”

54) 임동석, 《中國學術綱論》, 서울, 고려원, 1997, 208쪽.

55) 도교집단과 관련해서 증산은 黃巾力士의 숫대를 불사르는 공사(공사 3장 23절)를 본 바 있는데 여기서 황건역사는 장각이 만든 도교 집단인 《태평도》의 黃巾賊을 상징하는 것으로 그 기운을 증산이 없앤 공사가 된다. (구보 노리파나 지음/ 최준식 옮김, 《道敎史》, 서울, 분도出版社, 1990, 120-290쪽 참조.)

56)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서울, 푸른숲, 285쪽.

현되었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도의 회복이 급선무라 주장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1920년대 무극도의 출현은 과거 원의 시작 시점에서 황제가 등극했던 신도시대를 原始로 삼아 返本한다는 면을 시사한다. 이는 증산이 인류 原始姓인 姜姓이 최초의 성이라서 강성이 천하의 일을 맡게 됐다는 것과 堯舜의 도가 다시 나온다는 것 그리고 혈통줄이 바로 잡힌다는 원시반본 사상에 토대한 다. 한편 황제는 복희시대의 역인 河圖를 받아 日月星辰의 象을 보았으며 처음으로 天文과 관련된 책이 있고, 大撓라는 인물을 스승삼아 北斗星을 점쳐 甲子를 세워 만들었다⁵⁷⁾고 나타난다. 이는 증산이 선천시대 도의 祖宗으로 본 복희의 易사상이 황제시대에도 이어져 내려오며 발전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역사적 기록이다. 나아가 정산이 황제시대에 대해 여러 법과 책들 그리고 모든 현상들이 모두 始原된 것으로 傳敎(1923)에서 말하고 있는데, 황제시대가 1923년으로부터 보아 과거 元(4617년)의 시작이 되고 있는 면은 증산의 원시반본 사상을 토대해서 볼 때, 신원의 시작과 함께 출현한 무극도(신앙대상, 목적)가 황제시대를 포함해 앞장에서 논의한 太古의 천황 그리고 삼황시대 복희 사상에까지 연계되어 신도와 관련성을 맺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정산이 새로이 원이 시작되는 운기를 말하고 무극도를 창건해서 종교의 주요 교리를 정하였지만 증산의 천지공사와 개혁사상의 미증유성에 기인할 때 가능한 논의는 증산의 원시반본 사상에 의할 때 과거의 원에서 황제가 등극해서 인간들에게 문명을 가르쳐 전해준 일과 같은 차원에서 정산의 무극도가 증산을 신앙대상으로 하여 향후에 증산의 종교적 聖業인 天地公事(1901-1909)의 가르침을 피는 최초의 종단으로서 증산의 사상을 체계적으로 교리화하여 밝히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며, 이 주장에는 증산의 원시반본 사상, 증산에 의해 선천 사상의 祖宗으로 표현된 복희의 易사상, 증산에 의해 재편된 신도사상이 토대하고 있다.

둘째로 무극도의 신앙대상과 관련해서 무극도의 도교적 성격을 보기로 한다. 정산은 증산이 예언한 포교 50년 공부에 따라 1917년 득도하였는데 1923년에 신원을 말한 이후 1925년에는 종단 무극도를 창건하고 신앙대상을 <구천옹원뇌성보화천존상제(구천상제)> 라고 선언하였다. 즉 무극도 교단은 증산을 신앙의 최고 정점으로 하여 이루어진 교단이라는 것인데 증산은 신격위가 <구천상제> 라는 것이다. 그런데 주목되는 면은 구천상제가 도가의 존신으로 나타나며 이는 무극도의 신앙체계가 도교적 면모를 축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되고 무극도의 근간을 이루는 요소가 된다.

엄격하게 도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늘의 옥황상제가 하강하여 지상에 내려오는 법은 없다. 그러나 증산의 경우 스스로 옥황상제로 자처하면서 상제가 하강했

57) 《표주 십팔사략 독본》, 11-12쪽.

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그는 또 스스로 미륵불임을 자처했다. 이로 보면 증산사상은 도교적 상제와 불교의 미륵불의 하강사상이 통합된 형태로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⁵⁸⁾ 구천상제를 신앙대상으로 정하고 수행하여 도가적 도통을 이루는 것이 무극도(1925) 창도의 하나의 의미가 된다. 도가에서 尊神的 위치에 있는 구천상제를 인간들에게 도를 전해준 신앙대상으로 하여 수행을 통해 지상신선이 될 수 있다는 무극도의 교리는 인간의 도가적 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점은 증산이 밝힌 天降에 의한 醫通, 21일 공부에 의해 上中下로 도통한다는 것, 과거 종교에서 도통을 못해 원을 품은 이들이 해원의 측면에서 도통한다는 내용 등에서도 찾을 수 있다.

증산은 대순하기 이전에 九天에 있었으며 증산에게 신성 불 보살 등이 하소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 구천은 증산이 구천상제라는 도가적 신으로 명명된 이유가 된다. 또 증산은 뇌성을 普化하여 만방에 펼치는 존재로 정산의 설명에 드러난다.

도주께서 해인사에서 돌아오신 다음 날에 “상제께서 해인을 인페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어떤 물체로 생각함은 그릇된 생각이니라. 해인은 먼데 있지 않고 자기 掌中에 있느니라. 우주 삼라 만상의 모든 이치의 근원이 바다에 있으므로 해인이요. 海島真人이란 말이 있느니라. 바닷물을 보라. 전부 전기이니라. 물은 흘러 내려가나 오르는 성품을 갖고 있느니라. 삼라 만상의 근원이 수기를 흡수하여 성장하느니라. 하늘은 三十六天이 있어 상제께서 통솔하시며 전기를 맡으셔서 천지 만물을 지배 자양하시니 雷聲普化天尊上帝이시니라. 천상의 전기가 바닷물에 있었으니 바닷물의 전기로써 만물을 포장하느니라”고 말씀하셨도다.⁵⁹⁾

증산으로부터 계시에 의해 중통을 전수 받은 정산이 <해인사> 를 방문(1954)하고 海印이라는 도통과 관련된 의미를 이야기하며 증산의 신격위에 대해 밝힌 내용이다. 즉 증산은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로서 雷聲普化라는 용어의 뜻이 보여 주듯이 뇌성을 주관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인 것이다. 이와 관련 《대순진리회 요람》에는 신앙대상인 <구천응원뇌성보화천존상제> 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九天이라 함은 典經에 『..모든 神聖, 佛, 菩薩들이 會集하여 九天에 하소연하므로...(교운1장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宇宙를 總轄하시는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天尊께 하소연하였다는 말이니 그 九天은 바로 上帝께서 三界를 統察하시사 乾坤을 調理하고 運化를 調鍊하시고 계시는 가장 높은 위치를 뜻함이다. 應元이라 함은 모든 天體뿐만 아니라 森羅萬象이 다 天命에 應하지 않고 生成됨이 없음을 뜻함이다. 雷聲이라 함은 天聲이며 仁聲인 것이다. 雷는 陰陽二氣의 結合

58) 김홍철, 앞의 논문, 325쪽.

59) 《典經》, 교운 2장 55절.

로써 成雷된다. 雷는 聲의 體요, 聲은 雷의 用으로써 天地를 나누고 動靜進退의 變化로 天氣와 地氣를 昇降케 하며 萬物을 生長하게 하고 生成變化 支配滋養함을 뜻함이다. 普化라 함은 宇宙의 萬有가 有形 無形으로 化成됨이 天尊의 德化임을 뜻함이다. 天尊이라 함은 群生萬物을 雷聲으로 普化萬方하시는 至大至聖한 三界의 至尊임을 뜻함이다. 姜聖上帝라 함은 宇宙 森羅萬象을 三界大權으로 主宰 管領하시며 觀鑑萬天하시는 全知全能한 하느님의 尊稱임을 뜻함이다.⁶⁰⁾

요람의 글은 구천, 응원, 너성, 보화, 천존, 강성상제에 대해 각각을 설명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모든 천체와 삼라만상이 구천의 상제에 응하여 존재하며 姜聖상제는 너성으로서 만물을 두루 지배하고 자양하는 덕화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도교 경전의 集體인 道藏에 기록된 《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玉樞寶經集註》⁶¹⁾에 적혀 있는 부분과 내용상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체 의미적으로는 유사한데 集註에서는 신격위에서 구천응원너성보화까지의 각각 한 글자씩 설명하고 천존에 대한 풀이를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강성상제에 대한 설명은 없다. 이는 구천상제가 신앙화되어 姜姓으로 인간 세상에 온 증산에 대해 신격위가 <구천응원너성보화천존강성상제>로 된 면에 연유한 것이다.

또 구천상제는 <九靈三精呪>에 <吾奉九天應元雷聲普化天尊 玉清真王>이라 하여 玉清真王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옥청진왕은 삼청의 진왕중의 한 尊神이다. <五方呪>에는 <吾主人太一聖哲 奉三清眞王>이라 하여 三清眞王을 받든다는 내용도 보이는데 이 주문들이 무극도에서 쓰여졌다는 것⁶²⁾은 삼청신앙이 수용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다. 삼청은 도교가 믿고 받드는 최고신이다. 그러므로 도교 명산과 궁관의 삼청관, 삼청각, 삼청단에서는 이들을 받든다. 삼청의 지위는 조금씩 다르다. 삼청의 출현으로 도교의 신선 계보가 보다 명확해졌다. 수없이 많은 도교 신령 속에 가장 높은 것은 삼청이고 그 다음은 四御, 그 다음은 각종 해, 달 별 등의 신으로서 질서가 정연해지고 등급도 더욱 엄격해졌다.⁶³⁾ <구천응원너성보화천존>은 일체의 雷神 가운데 最高神으로 三清 중 玉清境에 주재하며 다르게는 옥청진왕의 化身이다.⁶⁴⁾

한편 무극도가 증산을 구천상제로 신앙하는 교단임을 볼 때 증산의 신도는 기존 신도를 그대로 회복하는 것이 아닌 구천상제로서의 증산을 최고신으로 하여 증산의 천지공사를 통한 새로운 조정을 거쳐 이루어지게 된다. 神은 단순한 대상

60) 대순진리회교무부, 《대순진리회 요람》, 경기도포천,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6-7쪽.

61) 예문인서관편, 《正統道藏》3책, 서울, 법인문화사, 1987, 2215쪽.

62) 또 당시에 봉축주, 진법주(중략) 오방주, 구령삼정주 등이 주문으로 쓰였으나 대부분이 전하지 않고 몇 주문만이 전하여 오니라(《典經》, 교운 2장 42절)

63) 우민홍 著/ 권호·김덕삼 譯, 《도교문화개설》, 서울, 불이문화, 2003, 68-171쪽 참조.

64) (日)窪德忠 著/ 蕭坤華 譯, 《道教諸神》, 중국, 四川人民 出版社, 1996, 88面.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하겠지만 일단은 삼청 가운데 옥청진왕의 위상이 구천상제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신은 어떤 사람의 신이거나 어떤 사람에게 신이다. 신의 종교적 의미는 신 앞에서 있는 우리의 행위 속에 존재한다. 신이 단순한 대상이 아니라 주체들의 행위 형식에 의해 구성된다면 이러한 관계의 우주는 방부 처리되고 탈신화된 과학 언어의 세계와 날카롭게 대조된다. 신들의 언어 속에서 부르기, 듣기, 그리고 恭敬의 범주에서 세계가 경험된다.⁶⁵⁾ 이에 증산은 명부, 종교 종장 등 각종의 신명을 새로운 존재들로 바꾸었으며 기존 세상을 묵은 하늘에 의해 운행되어온 것으로 지적하고 모든 이치를 모아 이루는 개혁을 통해 도수를 다시 바로 잡아 새로운 후천의 시운을 만들어 자신이 천지공사로 조정된 신도에 의해 우주가 운행되는 원리를 언급했다.

셋째로 무극도 목적에 속하는 <지상신선실현> 과 <지상천국건설> 에 관련하여 무극도의 도교적 성격을 살펴보기로 한다. 목적의 神仙, 天國이라는 용어에 주목해서 먼저 지상신선실현에 대해 人尊사상을 토대로 증산의 신선관, 신선화의 방법에서 도교적 요소를 보기로 한다. 증산은 조선 후기에 앞으로의 시대를 人尊시대라 하였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시대라. 마음을 부지런히 하라.⁶⁶⁾

神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역을 단지 드러내고 비교하는 것만으로는 신들의 종교적 의미가 충분히 파악되지 않는다. 공간적 메타포는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이 신들과 상호 작용하는 실제적인 방식을 검토할 때 신들의 삶이 훨씬 잘 이해된다. 신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방식은 신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일정한 영향을 주며 신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신들이 나타나는 방식에 일정한 영향을 준다는 원리가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의 패턴은 인간이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와 인간이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이다.⁶⁷⁾ 人尊시대는 인간이 존귀해지는 시대라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기존의 천과 지를 높이던 시대가 가고 인간이 성사재인에 따라 천과 지보다 높아지는 시운이 된다는 것이며 이는 증산의 강세와 대두목의 중통계승 그리고 유불선 도통신들의 평가에 의해 도통군자가 출현하여 세상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차원을 말한다.

신은 음, 인간은 양이므로 陰陽合德에 기초하면 신과 인간도 서로 合本, 合德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음양합덕이 곧 神人調化의 바탕이 된다고 하겠다. 또한 신인조화의 사상은 人尊의 실현과 새로운 綱倫의 확립이라는 사상체계를 포함한다.⁶⁸⁾ 이러한 환경의 조성은 물질에 치우친 상황을 바꾸어 神道와 人事의

65) 윌리엄 페이든 지음/ 이진구 옮김, 《종교의 세계》, 서울, 청년사, 2004, 168-169쪽 참조.

66) 《典經》, 교법 2장 56절.

67) 윌리엄 페이든 지음/ 이진구 옮김, 위의 책, 178-179쪽 참조.

常道를 바로 잡은 후에 가능한 것으로 이것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결국은 증산을 頂點으로 後天을 이루는 신도를 根幹해서 인존시대의 기틀을 세우고 道通君子가 나와 새로운 완성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증산의 독창적인 인존사상을 토대로 할 때 무극도의 신선 실현은 어떠한 면에서 기존 신선과 차별되는가를 보기로 한다. 증산이 降世한 지역은 三神山이 있는데 이는 도가의 신선사상과 관련이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蓬萊山, 瀛洲山 一名 神仙峰, 方丈山の 세 산이 三神山으로 불리워 오던 곳이다. 方丈山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望帝峰과 瀛洲山이 우뚝 솟으니 그 뒷기슭과 함께 仙人布氈을 이룩하고 있도다. 望帝峰의 산줄기가 기복연면하여 시루산을 이룩하였도다.⁶⁸⁾

증산이 강세한 지역은 三神山인 봉래산, 영주산, 방장산이 위치하고 있는데 <封禪書>에는 제나라 위왕, 선왕과 연나라 소왕 때부터 사람을 바다로 보내 봉래, 방장, 영주를 구하게 시켰으며 전설에는 이 삼신산이 발해 안에 있다⁷⁰⁾는 내용이 있다. 위의 예문에서는 삼신산 중 하나인 방장산으로부터 望帝峰이 이어져 甌山을 이루는데 증산은 號이기도 하다. 이러한 양상은 도가의 삼신산 사상과 맥을 같이 하며 인신강세한 증산이 도가의 神仙사상과 상관성이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증산은 향후의 세계에서 동학을 창도한 수운(1824-1864)에 대해 仙道の 宗長이 된다고 하였는데 증산의 위상을 수운과 비교해서 볼 때, 증산의 도가적 사상이 仙道로 표현되는 성격의 도와는 다른 측면임을 보여 주고 있다.

仙道와 佛道와 儒道와 西道는 세계 각 족속의 문화의 바탕이 되었나니 이제 崔水雲을 仙道の 宗長으로, 震默을 佛敎의 宗長으로, 朱晦庵을 儒敎의 宗長으로, 利瑪竇를 西道の 宗長으로 각각 세우노라.⁷¹⁾

선도, 불도, 유도, 서도의 새로운 종장들이 선정되고 있는데 선도의 종장이 최수운으로 나타난다. 선도는 도가와 상호 연결성을 갖고 있는 사상인데, 증산의 독창적 원리에 의한 천지공사가 보여주듯이 증산의 도의 범주 안에서는 복희의 易사상, 천황·지황·인황의 道만으로도 규정지을 수 없는 면이 있는데 이는 증

68) 윤계근, <한국근대의 종교·사상적 동향과 대순사상의 대두>, 《대동철학》 23집, 부산, 대동철학회, 2003, 573쪽.

69) 《典經》, 행록 1장 2, 3절.

70) “自威宣燕昭 使人入海求蓬萊方丈瀛洲 此三神山者 其傳在渤海中”(司馬遷 撰, 裴駟 集解, 《史記》, 宏業書局有限公司, 1983, 361面)

71) 《典經》, 교운 1장 65절.

산의 사상이 기존 사상의 정수를 취하여 후천이라는 새로운 이상 세계를 만들기 위해 새 질서 체계를 천지공사를 통해 구현해 가는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변화하는 주변 환경 하에서 기존 사상들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극복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의한 현실 문제의 극복을 위해서이다. 기존 사상의 새로운 양상으로의 昇華된 전환은 조선후기 불교의 폐단을 말하고, 이마두(1552-1610, 리치)가 동양 전교에 실패한 것이 유교의 폐습 때문이며, 수운의 문제가 유교의 전현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당대 기존 종교 사상들이 문제의 해결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새로운 사상이 필요함을 보인 면이 된다.

이와 관련 증산의 사상에서 수운이 선도의 宗長으로 정해진 것과 앞장에서 다룬 증산의 무위이화의 수용 등을 볼 때 구천상제인 증산의 신선관은 과거 선도와와의 연관성에서 주장된 신선관에 머물지 않고 증산 자신이 신선으로 다시 세상에 온다하고 신선의 형체를 독자적으로 묘사한 것과 정산에 의해 인간개조로 출현하는 지상신선과 대비되고 있다.

무엇보다 증산 신선사상의 특징은 증산 자신이 神仙의 모습으로 出世한다는 면에서 찾을 수 있다. 이는 증산 특유의 신선관을 보여 주는데 정산 무극도의 목적에서도 지상신선실현이 궁극적 인간 완성임을 볼 때, 신선사상을 통해 도가의 완성을 이루려고 한 증산의 강한 의지를 볼 수 있다. 이에 증산 특유의 신선관에 의한 지상신선실현이 무극도의 도교적 요소가 된다.

나의 얼굴을 똑바로 보아두라. 후일 내가 출세할 때에 눈이 부서 바라보기 어려우리라. 예로부터 신선을 말로만 전하고 본 사람이 없느니라. 오직 너희들은 신선을 보리라. 내가 장차 열석자의 몸으로 오리라.⁷²⁾

증산은 신선에 대해 예로부터 말로만 듣고 본 사람이 없었다 하고 증산 자신의 출세시에 신선을 보게 될 것이라고 묘사하였는데 이는 우리가 보아 불러왔던 역사 속에 많은 신선에 속하는 존재들과 차별화된 위치에 증산의 신선관이 있음을 말한다. 증산이 주장한 신선은 기존 신선에 고착되지 않은 증산 자신을 말하는 것으로 위의 예문에 나오는 설명처럼 눈이 부서 바라보기 어려우며 13자의 몸으로 현현하는 미래의 出世時 증산의 모습에 歸着된다.

한편 이러한 신선으로의 증산의 출세는 신선 사상의 토대위에서 이해되어지지만 증산의 주장처럼 증산의 출세시 모습이 진정한 신선의 형체라 할 때, 무극도의 목적에서 주장된 지상신선은 동학의 지상신선이 무위이화 해서 되는 것으로 한울의 마음과 일치할 수 있는 마음을 갖춘 인격체를 뜻하는 것이며 주체적이며 능동적인 인간의 노력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는 것⁷³⁾에서 더 나아가 신선이 되

72) 《典經》, 행록 2장 25절.

어 열석자(13척)의 몸으로 세상에 다시 온다는 증산의 초월적 능력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존재라 할 수 있다.

도가의 이상적인 인간상인 신선을 지상에 실현하는데 있어 증산이 묘사한 신선으로의 증산의 출세와 그에 수반되는 신이한 권능에 의한 인간의 개조를 통해 지상에 신선을 이루는 것이 무극도의 도가적 성향의 특징이다. 즉 지상신선은 증산의 신선으로의 출세라는 맥락에 있지만 증산과 대두목 그리고 도통신에 의해 창출⁷⁴⁾되는 증산보다는 하위격의 존재로 신선이 주재하는 영역에 있어 地上이라는 단서가 보여주듯이 인간의 변화가 한 차원 높게 구현되는 면을 내포하고 있다. 신선사상의 표현에서 지상신선은 어느 면에서든 간에 지상의 도가적 이상향화와 관련해서 존재하게 될 신선이라는 면을 생각할 수 있으며 窮極의으로는 신선으로의 증산의 지상 출세가 지상신선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되고, 지상신선은 成事在人의 원리 하에 출현하는 도통군자와 같은 의미를 갖는 존재들로 지상신선실현의 淵源은 신선으로 出世하는 증산에게 있다. 아울러 지상신선실현은 증산의 삼계 통합적 이상세계를 이루려는 취지에서 가시화 되는 것으로 인존사상에 의한 現實세계의 문제에 대한 극복 의지를 강하게 보여 주며 인간 완성인 도통군자와 통하는 개념으로 上中下의 세 등급으로 나타난다.

또 인간의 개조를 통한 지상신선의 실현은 神異한 원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가적 법술과의 상관성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증산이 구천상제로 위치하는 신도의 체제하에서 가능한 것이다. 먼저 증산이 금산사에 靈의으로 머물면서 수운에게 계시를 내렸는데 이는 도가적 법술에 의한 것이다.

東土에 그쳐 母岳山 金山寺 三層展 彌勒金佛에 이르러 三十年을 지내다가 최제우에게 濟世大道를 계시하였으되 제우가 능히 유교의 전현을 넘어 대도의 참 뜻을 밝히지 못하므로 甲子年에 드디어 천명과 神敎를 거두고 辛未年에 강세하였노라.⁷⁵⁾

증산이 금산사 미륵금불에 거할 때 계시라는 방법을 통해 수운에게 가르침을 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신적 존재가 인간에게 신비적 방법으로 접촉해서 능력을 준 것으로 도가적 면모를 보여 준다. 증산이 후일 다시 수운에게 주었던 天命과 神敎를 거두었다는 내용도 도가적 성격을 띤 부분이다. 민간신앙 속에서의

73) 윤석산, 앞의 논문, 336-337쪽 참조.

74) “내가 도통줄을 대두목에게 보내리라. 도통하는 방법만 알려주면 되려니와 도통 될 때에는 유불선의 도통신들이 모두 모여 모두 모여 각자가 심신으로 담은 바에 따라 도에 통하게 하느니라” (《典經》, 교운 1장 41절)

75) 《典經》, 교운 1장 9절.

도교적 요소로서는 천신에 관한 것으로 무속에서와 같은 영매로서의 매개자를 통한 천신과의 소통이 아니라 직접적인 응신 내지 영신하는 식의 종교현상에서도 일맥상통하는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종교로서는 동학 천도교가 가장 도교와 관계 깊은 것도 그 교리의 내용과 이론 전개에 있어서 도가사상과 접근되는 점이 많은 데서 찾아 볼 수 있지만,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천신과의 직접적인 응접을 하는 점에서 가장 도교와 접근되는 점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하겠다.⁷⁶⁾

이와 함께 天降에 의해 인간이 醫通을 구사하게 된다는 증산의 예언적 언급이 인간 개조와 그에 의한 인간의 지상신선화라는 무극도의 목적을 가능케 해주는 내용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인간개조로 창출된 지상신선과 관련된 도가적 범술의 일면을 보여 주는 예가 된다.

공우가 옆에 계시는 상제께 “東學呪에 降을 받지 못하였나이다”고 여쭙니 “그것은 다 濟愚降이고 天降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셨도다. 또 “만일 천강을 받은 사람이면 병든 자를 한번만 만져도 낫게 할 것이며 또한 건너다 보기만 하여도 나오지니라. 天降은 뒤에 있나니 잘 닦으라”고 일러주셨도다.⁷⁷⁾

天降이 제우강과 비교되어 설명되고 있다. 증산의 종도인 박공우가 수운이 받은 계시를 濟愚降으로 표현한 것은 도가에서 신이한 능력을 얻게 되는 신비 체험이다. 수운이 받은 능력이 제우강으로 설명되고 또 수운이 呪文과 靈符를 받았다는 면은 도가적 성격을 드러낸다. 주문과 영부는 呪術性을 보여주는 것으로 도가적 수행의 근본이 되며 제우강과 차별되는 天降도 도가와 관련되는데 증산은 새로운 인간의 능력이 나올 수 있는 근거를 천강이라는 신이한 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인간 수행에 따른 결과로 지적하고 있다. 위의 예문에서 인간이 천강을 받으면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보기만 해도 낫는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의통은 인간의 새로운 능력으로 도통과 직결되는 인간의 모습이 된다. 이처럼 증산의 인간완성은 인간이 천강을 받아 이루어지는 차원인데 천강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至氣로 이 천강을 인간이 받음으로써 의통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은 도가의 신이한 治病과의 상관성을 또한 보여준다.

다음으로 지상천국 건설과 관련해서 朝鮮國運 공사, 천국문명, 후천선경 등의 면에서 도교적 요소를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이상세계인 천국 건설의 중심지이며 본원처인 조선국운 공사에 나타난 도교적 측면을 보는 일이 필요하다. 증산의 이상세계는 <만국활계남조선>이라는 내용처럼 증산이 천지공사를 행한 조선을

76) 송향룡, <한국 도교 도가 사상의 특질>,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우석, 1994, 419-420쪽.

77) 《典經》, 교운 1장 58절.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약소국 조선의 해원에 의해 조선의 國運이 달라진 기저위에서 전개 된다.

바둑의 시조 丹朱의 해원도수를 回文山 五仙圍碁穴에 붙여 조선 국운을 돌리려 함이라. 다섯 신선 중 한 신선은 주인으로 수수방관할 뿐이요, 네 신선은 판을 놓고 서로 패를 지어 따 먹으려 하므로 날짜가 늦어서 승부가 결정되지 못하여(후략)⁷⁸⁾

위의 예문에서 증산이 자신의 이상이 이루어지는 본원의 땅인 조선에 대해 신선들과 바둑판을 상징화한 〈오선위기혈〉을 상징하고 중국에는 바둑판이 조선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조선의 주체적 위상을 만들어 도가적 이상향을 구축하는 발원지로 조선을 만들어 가겠다는 의미로 이러한 증산의 구상은 도가적 사유를 보여 준다. 즉 단주의 해원을 오선위기혈과 관련해서 풀고 이것이 조선의 국운 상승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은 오선위기혈이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둔다는 의미임을 볼 때 도가적 상관성 하에서 두 가지 해원을 이루어 나감을 말해 준다. 오선위기혈의 신선 이미지는 조선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관련된 형국을 말하는데 다섯 신선이 바둑을 두는데 결국에는 판과 바둑돌이 주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은 조선의 해원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를 통해 순차적으로 단주의 이상세계건설의 포부도 달성된다는 것이다. 神仙의 바둑판에다 우리나라의 운수와 천하대세를 비유하여 머지않은 장래에 한국의 국운이 열리고 주인의 자리를 차지하여 안락한 나라가 되리라는 비유적 가르침인 것이다.⁷⁹⁾ 이처럼 과거 유교적 체제하에 있던 조선이 전혀 새로운 이미지인 신선과 관련된 상황으로 변이된 모습은 도가적 사유에 의한 비유가 된다.

이처럼 도가적 風貌를 담고 있는 오선위기혈에 의한 조선의 해원은 조선이 상등국이 되는 것이며, 이는 단주의 해원과 관련되어 있는데 단주의 해원은 단주가 명을 받는다는 〈丹朱受命〉의 뜻처럼 종통계승자인 정산이 증산의 명을 받아 증산의 일을 추진하는 것이다. 그런데 단주해원인 단주수명의 내용은 銅谷약방에서 이루어진 증산의 藥穢공사⁸⁰⁾에서 나타나듯이 도술적 측면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78) 《典經》, 공사 2장 3절.

79) 김홍철, 앞의 논문, 317쪽.

80) “약방을 설치하신 후 “元亨利貞 奉天地 道術藥局 在全州銅谷 生死判斷”이란 글귀를 쓰셔서 불사르셨도다.(중략) 약장 가운데 간에 “丹朱受命”이라 쓰고 그 속에 목단피를 넣고 그 아래에 “烈風雷雨不迷”라고 횡서하고 또 칠성경을 백지에 종서하고 그 끝에 “禹步相催登陽明”이라 횡서하고 약장 위로부터 뒤로 밀판까지 따라서 내려붙이고 그 위에 “陽丁六月二十日 陰丁六月二十日”이라 쓰시니라. 궤안에 “八門遁甲”이라 쓰고 그 글자 위에 “舌門” 두 자를 낙인하

도가적 세계의 구현과 상관이 있다.

이러한 천국이 인간세상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기로 한다. 天國은 서양 물질문명과 관련해서 나타난다. 서양물질문명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인데 이는 이마두가 사후에 서양으로 문명신을 거느리고 옮겨 간 후 지하신이 천상의 묘법을 본 받아 인간 세상에 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양인 利瑪竇가 동양에 와서 지상 천국을 세우려 하였으되 오랫동안 뿌리를 박은 유교의 폐습으로 쉽사리 개혁할 수 없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도다. 다만 천상과 지하의 경계를 개방하여 제각기의 지역을 굳게 지켜 서로 넘나들지 못하던 신명을 서로 왕래케 하고 그가 사후에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에 가서 文運을 열었느니라. 이로부터 지하신은 천상의 모든 묘법을 본받아 인세에 그것을 베풀었노라. 서양의 모든 문물은 천국의 모형을 본뜬 것이라. 그 문명은 물질에 치우쳐서 도리어 인류의 교만을 조장하고 마침내 천리를 흔들고 자연을 정복하려는 데서 모든 죄악을 끊임없이 저질러 신도의 권위를 떨어뜨렸으므로 천도와 인사의 상도가 어겨지고 삼계가 혼란하여 도의 근원이 끊어지게 되니.⁸¹⁾

天國과 관련해서 서양 문물이 유래했음을 보여 준다. 이마두의 동양 천주교 전파 후의 神話的 死後談은 이마두가 죽은 후 신계에서 동양의 文明神을 거느리고 서양으로 건너가 文運을 열었는데 천국 문명이 지상에 전해진 것은 지하신이 천상에 올라가 천국의 문명을 인간 세상에 베푼 것으로부터 유래했다고 나타난다. 결국 인간 세상의 문명은 〈文明神〉의 활동과 관련이 있으며 천상의 문명을 인간 세상에 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서양 물질문명은 천국의 문명을 전해준 것으로 요약된다.

나아가 위의 예문에는 그 서양 물질문명이 물질에 치우침과 인간의 잘못으로 인하여 혼란이 삼계에 일어났음을 말하고 있다. 이에 증산은 서양 물질문명에 대해 그 폐단을 고치고자 하였으며, 아울러 이후 아래와 같이 서양 물질문명을 존속케 하는 공사를 처결하였다.

상제께서 경석에게 “전에 네가 나의 말을 좃았으나 오늘은 내가 너의 말을 좃아서 공사를 처결하게 될 것인바 묻는 대로 잘 생각하여 대답하라.” 이르고 “서양 사람이 발명한 문명이기를 그대로 두어야 옳으나 건어야 옳으나”고 다시 물으시니 “경석이 그대로 두어 이용함이 창생의 편익이 될까 하나이다.”고 대답하니라. 그 말을 옳다고 이르시면서 “그들의 기계는 천국의 것을 본 딴 것이니

신후 그 글자 주위에는 二十四점을 홍색으로 찍고....”(《典經》, 공사 2장 9절) 이 구절에서 특히 도술약국, 칠성경, 팔문둔갑 등이 도가적 성향을 보여준다.

81) 《典經》, 교운 1장 9절.

라.”고 말씀하시고 또 상제께서 여러 가지를 물으신 다음 공사로 결정하셨다.⁸²⁾

서양 물질문명이 창생의 편의를 위해 존속한다고 할 때 그것은 당위적으로 기존의 폐단을 극복한 터전위에서 문명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이러할 때 궁극적으로는 신경 건설과 관련해서 후천의 문명은 새로이 구축된 신도의 主宰者이며 開闢長으로 무극도의 신앙대상인 구천상제가 천국의 문명을 적극적으로 구현해 가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된다. 한편 천국은 신들이 거하는 곳으로 일면 신계의 모습으로 정리 될 수 있는데 증산의 사상에 나타난 神들을 보면 도가와 관련된 신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신계에는 천상에 명부, 옥경, 옥추 등이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천국의 양상을 보여 준다. 또 천국은 天上公庭이라는 면과 연관된다. 선령신이 지상 자손과 연결되며 천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도통신들이 인간과 연계되어 인간의 수도에 대해 평가를 한다는 구조는 천국으로부터 인간의 羨望이 이루어짐을 또한 말해준다. 이는 지상 천국건설이라는 무극도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단서를 주는 것이며 결국 거시적으로는 천국이라는 도가적 이상향의 地上에의 건설이 된다.

그러나 증산에게 있어 천국건설은 단편적인 천국의 모형을 본 따는 차원을 뛰어 넘어 궁극적으로는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기 위해 세계를 개벽한다는 개벽사상이 연관되어 있는데 神道에 의해 신명을 造化하여 이루어지는 원리를 갖고 있다. 즉 신명계와 인간계는 서로 相推相應의 관계인데 姜一淳은 천지공사를 행할 때마다 모든 신명들을 불러 모아 造化政府를 결성하여 우주의 原動機關으로서 統一神團의 결성을 통해 모든 신명을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자신의 권능으로 신명들을 불러 모아 이 조화정부에서 이들과 천지공사를 하였다고 하는데⁸³⁾ 이는 증산을 최고신으로 하는 증산사상적 신도의 체계에서 무극도 목적이 이루어짐을 보여 준다. 한편 증산의 강세와 강세의 궁극적 목적이 드러나 있는 다음의 내용은 지상에 이룩될 천국의 미래상이다.

금산사에 상제를 따라갔을 때 상제께서 종도들에게 天皇 地皇 人皇 후 天下之大金山 母岳山下에 金佛이 能言하고 六丈金佛이 化爲全女이다. 萬國活計南朝鮮 淸風明月金山寺 文明開花三千國 道術運通九萬里란 구절을 외워주셨도다.⁸⁴⁾

《十八史略》에 기록되어 있는 太古의 존재인 천황·지황·인황으로부터의 모

82) 《典經》, 공사 1장 35절.

83) 노길명, 〈신과 인간의 원한을 말소한다〉,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우석, 1994, 429-433쪽.

84) 《典經》, 예시 14절.

든 역사상 일들을 총괄하는 체제위에서 금산사 미륵불을 거쳐 인간으로 탄강한 증산이 남조선을 터전으로 만국이 살 계책을 내놓아 천국의 문명이 이루어진 三千國을 만들고 九萬里 우주에 도술이 통하는 道之通明의 우주를 이룬다는 것은 증산의 강세 목적을 보여 준다. 여기에서 금산사, 미륵불 등의 용어가 증산의 강세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지만, 증산의 이상세계는 <도술운통구만리>로 표현되는데 九萬里는 도가에 등장하는 용어로 <문명개화삼천국>은 도술문명이 구만리에 통할 때 이루어질 나라가 三千國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조선의 국운이 상승된 국면위에 전개되는 천국 건설의 양상은 다음의 後天仙境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仙境이라는 용어가 이미 도가적 이상향을 담고 있는데 증산이 이루고자 하는 후천은 아래와 같다.

후천에는 사람마다 불로 불사하여 장생을 얻으며 궤함을 열면 옷과 밥이 나오며 만국이 화평하여 시기 질투와 전쟁이 끊어지리라. 후천에는 또 천하가 한 집안이 되어 위무와 형벌을 쓰지 않고도 조화로써 창생을 범리에 맞도록 다스리리라. 벼슬하는 자는 화권이 열려 분에 넘치는 법이 없고 백성은 원울과 탐음의 모든 번뇌가 없을 것이며 병들어 괴롭고 죽어 장사하는 것을 면하여 불로불사하며 빈부의 차별이 없고 마음대로 왕래하고 하늘이 낮아서 오르고 내리는 것이 뜻대로 되며 지혜가 밝아져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시방 세계에 통달하고 세상에 水, 火, 風의 삼재가 없어져서 상서가 무르녹는 지상선경으로 화하리라.⁸⁵⁾

위의 예문은 증산이 이루려는 유토피아를 보여준다. 특히 인간이 衰病死葬을 벗어나 不老不死하여 長生을 얻고 三災가 없어져서 地上仙境으로 된다는 것은 道家에서 지향하는 理想郷과 그 맥이 통하고 있다. 이외에 하늘이 낮아져 오르고 내리는 일이 편해진다는 것은 천국 즉 신계와 인계가 가까워진다는 것으로 羽化而登仙하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도 있듯이 이는 인간세상 가까이에 도가적 이상세계가 구현되어 지혜가 밝아져서 과거 미래 현재 시방세계에 통하게 될 문명개화삼천국, 도술운통구만리의 세계에서 나타날 유토피아를 주체적으로 나타낸 것이고 이것은 물론 도교적 성격의 교단인 무극도를 통해 이루어져 간다는 연결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85) 《典經》, 예시 80, 81절.

IV. 결론

조선 후기의 종교적 상황은 몰락하는 조선 왕조의 悲運 속에서 특히 儒·佛이 모두 민중에게서 멀어지며 새로운 양상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즉 이 시기는 서양 종교의 유입과 圖讖說, 讖緯說, 十勝地사상, 鄭鑑錄 등에 의해 新宗教가 출현하며 일대 변혁기를 맞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증산은 유불선과 음양 및 참위 등 각종 제 사상들의 精髓를 걷어 취하고 자신의 독창적 종교 행적인 天地公事를 통해 새로운 주장을 가미하여 우주적 혼란을 극복하려는 차원에서 종교 사상을 펼쳤다.

증산의 사상은 증산의 화천 후 계시에 의해 정산이 택해져 인간 세상에서 증산의 사상에 대한 布敎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 한편 동서양의 교류는 지역이라는 협소한 틀을 넘어 더욱 넓은 세계 안에서 인간이 활동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된 양상은 세계 질서의 확립에 있어 통합적 세계에 맞는 새로운 사상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무극도는 전환된 새로운 세계에 맞는 사상을 제시하게 되는데 그것은 구천상제를 신앙대상으로 하는 도교적 측면에 근원하는 신도적 사유체계이다. 무극도의 지상신선 실현과 지상 천국 건설에서 신선과 천국은 도가 사상이 내재되어 있는데 신선은 특히 선도의 신선사상의 인간 완성이고 천국은 도가에서 꿈꾸는 이상향이다.

이렇게 증산의 도가적 성격이 무극도까지 이어지며 나타나고 있지만 증산의 도가적 경향은 단순히 도가적인 것에만 그치지 않고 정산에 의해 증산이 무극도의 최고의 신격위가 되어 증산의 신도 사상을 축으로 숭배의 대상에 올라 기존 도가의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의 신격위가 증산에게 붙여져 도교적 신단을 이루고 있는 것이 주목되는 면이다. 아울러 이것은 무극도를 창도한 정산의 신격위가 <옥황상제>라는 점에서도 도교적 개연성이 연결되어 있다.

증산이 대순이라는 종교적 구원의 행적을 추진하며 진단한 문제는 신도의 질서가 무너져 그 권위가 추락됨으로써 발생된 우주적 혼란이었다. 이는 신도의 회복이 증산의 사상체계 안에서 일정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를 따라 증산이 자신의 가르침을 도가적 성향에만 그치지 않고 더욱 고양시켜 신적 존재의 원리가 작용하는 토대위에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게 된다.

이러한 토대위에서 우리는 신도라는 용어를 통해 증산의 도를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잡을 수 있다. 증산은 복희의 도를 祖宗이라 표현하였는데 이는 易사상이 증산의 사상체계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말해 준다. 증산의 도가적 특성에 기반해서 살펴 본 无極道の 도교적 성격은 세 가지로 무극도의 신앙대상인 <구천응원녀성보화천존상제>, 무극도의 출현배경은 1923년에 정산이 밝

힌 〈이재신원〉, 무극도의 목적에서는 〈지상신선실현〉과 〈지상천국건설〉에 관한 것이다. 이는 무극도라는 종단의 출현 배경(신원)과 종단에서 나타나는 신앙 체계 중 신앙대상과 교리(목적)에 대한 면으로 이재신원은 증산의 원시반본 사상과 관련지어 신도사상과 시운적으로 연관이 있고 신앙대상은 구천상제가 도가의 尊神이었다는 면과 상관되며 목적은 도가적 내용을 담고 있어서 이다.

정산은 1923년 新元의 제정에서 무극도의 시운적 출현 배경을 시간의 주기에 따라 보았으며 傳敎는 신도에 근거하여 무극도가 창설된 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순환론적 세계관은 증산의 사상이 복희의 易사상에 원천하여 상고 신도 사상에 연맥한 것이 된다. 또 새로운 세계인 후천은 증산의 권능에 의한 신단의 조정과 재구성을 통해 이루어지는 신도에 의한 것인데, 증산의 화천 후 정산의 무극도에 의해 신도의 최고 頂點에 구천상제로 증산이 奉安되어 무극도의 신앙 체계가 이루어졌다는 면이 상고시대 신도 사상과 다른 면이 된다. 증산은 신도와 도가의 무위이화를 연계하여 한 차원 높게 승화 創出시켜 玄妙不則한 공을 이루는 것이고 생장염장의 법이라 하였는데, 이는 도가의 주장을 주체적으로 신도와 연관지어 자신의 사상적 특질로 밝힌 일이 된다.

증산의 神道사상은 교단 무극도에서 仙境을 이루는 근간이 되며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여, 人道의 완성을 달성해서 인존시대의 기틀을 세우는 것이 된다. 이를 통해 인존시대에 맞추어 도가의 도통과 관련하여 道通君子가 나와 완성을 이루는 것이며 아울러 지상에 천국을 건설하는데 신계의 천국문명이 관련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仙境을 만들어 나간다는 무극도의 목적은 도교적 세계관을 보여 준다.

《 參考文獻 》

《史記》

《典經》

《正統道藏》

《周易》

《標註 十八史略 讀本》

대순진리회 교무부 편, 《대순지침》,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4.

- 대순진리회 교무부, 《大巡眞理會 要覽》, 서울, 대순진리회 출판부, 1969.
- 대순종교문화연구소, 《대순종교사상》, 경기도포천, 대순진리회 출판부, 1987.
- 임동식, 《中國學術綱論》, 서울, 고려원, 1997.
-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서울, 푸른숲, 2000.
- 고남식, 〈대순사상에 나타난 동학의 위상과 증산의 참동학 전개〉, 《대순사상논총》 16집, 경기도포천, 대순사상학술원, 2003.
- 김낙필, 〈한국도교연구의 중요쟁점〉, 《한국의 신선사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0.
- 김만산, 〈역학의 시간관〉, 《주역의 현대적 조명》, 서울, 범양사 출판부, 1993.
- 김탁, 〈한국종교사에서의 도교와 증산교의 만남〉, 《도교의 한국적 수용과 전이》,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4.
- 김홍철, 〈한국 신종교에 나타난 도교사상〉,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노길명, 〈신과 인간의 원한을 말소한다〉,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우석, 1994.
- 송향룡, 〈한국 도교 도가 사상의 특질〉, 《한국사상의 심층》, 서울, 우석, 1994.
- 윤석산, 〈동학에 나타난 도교적 요소〉, 《도교사상의 한국적 전개》, 서울, 아세아문화사, 1989.
- 윤재근, 〈한국 근대의 종교·사상적 동향과 대순사상의 대두〉, 《대동철학》 23집, 부산, 대동철학회, 2003.
- 이강오, 〈한국신종교에서 보는 도교와 불노장생〉, 《한국도교와 도가사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1.
- 정재서, 〈한국 민간도교의 계통 및 특성〉, 《한국 도교문화의 위상》, 서울, 아세아문화사, 1993.
- 高懷民 著/ 송실대 동양철학연구실 譯, 《中國古代易學史》, 서울, 송실대출판부, 1994.
- 구보 노리따나 지음/ 최준식 옮김, 《道敎史》, 서울, 분도出版社, 1990.
- 니니안 스마트 지음/ 김윤성 옮김, 《종교와 세계관》, 서울, 이학사, 2002.
- 무라카미 시게요시 外/ 최길성 편역, 《일본의 종교》, 서울, 예진, 1993.
- 이능화 輯述/ 이종은 譯註, 《조선도교사》, 서울, 보성문화사, 1986.
- 우민홍 지/ 권호·김덕삼 역, 《도교문화개설》, 서울, 불이문화, 2003.
- 윌리엄 페이든 지음/ 이진구 옮김, 《종교의 세계》, 서울, 청년사, 2004.
- 陳鼓應 지음/ 최진석·김갑수·이석명 옮김, 《주역 유가의 사상인가 도가의 사상인가》, 서울, 예문서원, 1996.
- 村岡典嗣 지음/ 박규태 옮김, 《일본신도사》, 서울, 예문서원, 1998.
- (日)窪德忠 著/ 蕭坤華 譯, 《道敎諸神》, 四川人民出版社, 1996.